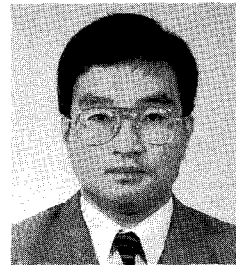


산란계 농장관리 전산화 프로그램(I)

정 정보화라는 단어가 아직 귀에 익숙하지 않던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는 업무의 '전산화' 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업무를 자동화한다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 통신시설과 통신 장비의 놀랄만한 발전과 특히 인터넷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기술 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전산화라는 용어는 진부한 말이 되어 버렸고, 그 자리를 '정보화' 라는 용어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전산화가 주로 컴퓨터의 활용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용어라고 한다면, 정보화는 컴퓨터의 이용과 함께 인터넷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취득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 회에 걸쳐 인터넷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는 정보화의 첫걸음은 역시 양계농가의 전산화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고, 양계농가의 전산화는 자신의 양계장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양계경영에 활용하기 위한 전산마인드를 갖추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겠습니다. 전산마인드란 자기가 손으로 하던 일들을 컴퓨터를 이용



최 연 호
(신구대학 교수)

하여 빠르면서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욕구에서 시작됩니다. 즉 컴퓨터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고속성, 정확성, 대용량성, 자동성을 업무처리에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전산화는 단순히 손으로 쓰고, 계산기로 계산하며 장부를 기록하던 것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또한 양계경영의 전산화를 이루었다고 해서 그 효과가 눈에 띄게 빨리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전산화 초기에는 그때까지 손으로 하면서도 나름대로 손에 익어 익숙하게 처리하던 일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하니 매우 어색하고 오히려 업무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이나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경쟁적으로 전산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어떤 산업분야에서도 전산화의 효과가 입증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양계경영에서도 전산화는 정보화 달성의 첫걸음으로서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양계경영의 전산화 현황

축산 분야의 업무 전산화 노력은 일찍부터 배합사료를 생산하는 사료 회사들을 중심으로 하여 사료 배합에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무에 활용하고자 하는데서 시작되었다.

일반 농장의 농장 관리 위한 전산화는 축종별로 주로 사양 관리 분야의 전산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국내의 경우는 목장관리의 전산화에 대한 관심이 일찍부터 대규모 목장을 중심으로 있어 왔으나 관련 소프트웨어

의 개발과 보급 실적이 미흡하여 활용 실태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도 양돈분야의 경우는 비교적 다른 축종에 비해 농장관리의 전산화가 두드러지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민간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에서 개발된 생산관리 및 경영관리용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양돈장의 생산관리, 경영분석, 회계관리 및 판매관리등의 업무 전산화에 이용되고 있다. 한편, 종돈장의 종돈검정 업무나 육종사업에 관련된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시스템도 개발되어 대규모 종돈장에서 이용되고 있다.

WinLay

산란계 농장관리 소프트웨어



WinLay

채란양계 농장관리시스템

신 구 대 학
대한양계협회

WinLay는 농협부의 현장애로 연구사업의 지원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양계농가의 경우는 종계관리는 물론이고 일반 양계장의 사양관리 업무의 전산화조차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양계농가의 경영자들이나 사양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자들이 농장관리의 전산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과 아울러서 효율적인 농장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되어 있지 못한데 기인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1984년에 한국가금학회가 양계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컴퓨터 활용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이 분야에서의 컴퓨터 이용에 대한 필요성을 주지시킨 이후, 그 동안 여러 종류의 소프트웨어가 대학이나 연구소 또는 배합사료회사들에 의해서 개발되어 산란계와 육계 사육농장관리에 활용된 실적이 있다.

개별 양계장에서 자체적으로 혹은 외부의

힘을 빌어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외한다면 양계경영에서의 전산화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1997년에 농림부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필자가 개발한 산란계 농장관리용 소프트웨어(LayFams)가 산란계농장에 보급되어 활용되었던 적이 있었으나, DOS환경에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로서 현재의 Windows 환경과는 맞지 않는 실정에 있어 더 이상의 활용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양계농가에서 활용이 가능한 농장관리용 소프트웨어가 매우 드문 현실에서 최근에 한 배합사료회사(제일제당사료)에서 산란계농장의 생산/경영분석용 프로그램(에그마스타)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는 것은 국내 양계농가의 전산화 달성 목표에서

그나마 다행스럽다 하겠다.

그러나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동안 개발되어 농장에 보급된 소프트웨어의 활용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실정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현상은 양계농가의 전산화 의지나 전산화 마인드 또는 양계농장의 생산관리



△양계전산화 프로그램은 매년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사진은 지난22일 신구대학에서 열린 산란계 농장관리 소프트웨어 Winlay 보급설명회 장면).



실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양계농가의 입장에서는 ① 활용할 수 있는 농장관리용 소프트웨어의 종류가 매우 적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고, ② 일부 개발되어 보급된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도 자신의 농장관리 실정에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으며, ③ 농장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라 하여도 컴퓨터 Windows 환경에 맞지 않아 사용이 불편하며, ④ 타 양계농가와 생산지수나 경영성과의 비교가 불가능하여 자신의 기술 수준을 평가하기가 어렵고, ⑤ 유통정보나 기술정보 등 양계경영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농장관리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시스템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계농가의 농장관리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업무분석과 소프트웨어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이다. 아직 대다수의 양계농가가 경영성과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의 기록조



△농장의 전산화는 농장주의 노력에 달려있다(사진은 설명회에 참가한 생산자가 캡코더를 이용해 전산 감의를 녹화하는 열의를 보이고 있다).



△현실에 맞는 농장관리용 소프트웨어 개발은 농장주와 지속적인 정보 교환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

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농장 현실이 반영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만 농가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계**